

美, 부시 방한 일정 일방 공개

7월 방문 취소 이어 또 외교적 결례...靑 “사과 뜻 전해와 수용”

미국 측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우리와의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2일 “미국 측이 오늘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우리에게 알려오면서 사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한 일정이 공개된 점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유감을 표명해와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조금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측의 유감 표명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은 취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방한 일정은 서로 합의가 돼 있었으나 서로 ‘모양새를 갖춰 발표하자’며 발표시기를 조율중이었다”면서 “그런데 미측에서 부시 대통령의 일본 G8(선진 8개국) 정상회의의 참석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한 날짜를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오는 7~9일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이번 만남은 8월 5~6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답방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부시 대통령의 답방 일정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며 시차 등으로 동시 발표가 어려울 때에는 초청하는 측이 먼저 발표한다. 이번의 경우에는 한국이 초청측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와일더 보좌관이 G8 정상회담과 관련한 설명을 하다 실수로 부시 대통령의 답방 일정을 발표한 것 같다”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외교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부시 대통령이 7월 초에 답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한국 측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잇단 외교결례가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생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초청측이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와일더 보좌관이 G8 정상회담과 관련한 설명을 하다 실수로 부시 대통령의 답방 일정을 발표한 것 같다”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외교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몽골 경찰들이 1일 울란 바토르에서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 주말의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충돌했으며, 집권 몽골인민혁명당 본부에 난입했다. 남버린 옹호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이날 4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몽골, 4일간 비상사태 선포

총선 부정 규탄 시위 격화...부상자 속출

남버린 옹호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총선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1일 밤 4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은 국영방송 포고령을 통해 “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4일 간의 비상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밤 10시 이후 정부의 허가 없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체포될 것이라고 야간통행금지령을 동시에 내렸다. 이밖에 포고령은 대중 집회를 금지하고, 국영 TV와 국영 언론을 제외한 다른 언론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일 약 6천명의 시위대가 지난 달 29일 실시된 총선의 부정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인 데 이은 것이다. 앞서 몽골 선거관리위원회 잠정 개표 결과 인민혁명당은 의석 76석 중 과반인 46석을, 몽골민주당은 26석을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매표행위 등 선거부정을 통해 인민혁명당이 민주당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울란

바토르 시내에 있는 인민혁명당 본부에서 화재가 났고, 본부 건물로 약탈을 당했으며, 불을 끄기 위해 온 소방대를 향해 시위대가 돌을 던졌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자들은 경찰이 폭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했고, 밤이 늦도록 시위가 가라앉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TV 방송은 정부 관리와 병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시위의 와중에서 최대 30명의 경찰과 25명의 민간인이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옹호바야르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앞서 바야르 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을 불러 비상안보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주문전화 폭주...첫날 200kg 동나

美쇠고기 공개 판매 수입업체 ‘에이미트’

이틀째 매진...물량 추가 확보 나서

2일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판매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재고 물량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육류수입업체에 따르면 전날 금천구 시흥동의 직영 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200kg을 시범판매해 6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에이미트는 작년 10월 이전에 확보한 등심과 꽃살을 위주로 판매를 확대했다. 에이미트는 이날 꽃살은 100g당 2천800원, 알등심은 100g당 2천300원에 판매해 오전 3시간 동안에만 15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날 오후까지 판매된 물량은 300kg를 넘었다고 전했다.

에이미트 직영 정육점 직원은 “안양, 의정부 등에서도 손님이 찾아오는 등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주문전화, 문의전화까지 폭주해 가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라며 “60%는 택배로 부산 등 전국 각지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40%는 직접 매장으로 찾아온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이후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는 다른 수입

업체를 통해 들어왔으나 이미 전날 시범판매에서 다 소진돼 추가 확보에 나섰다고 에이미트는 설명했다. 한국수입육협회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어제는 부위별 구색을 맞추려고 다른 업체에서 최근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새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는 다른 업체를 통해 따로 더 확보할 방침이며 다음주부터는 에이미트가 새로 신청한 쇠고기의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한때 광우병감시단 네트워크가 에이미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항의가 잇따르자 오후 한때 30여분간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선 업체는 에이미트 뿐이지만 업계에서는 상당수 수입업체들이 정육점이나 식당을 중심으로 소량씩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시중판매 이틀째인 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에이미트 본사 직영 정육점에서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 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전날 판매액이 600여 만원에 달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3시간 만에 15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합뉴스

美 쇠고기 한국 수출 작업장서 리콜

병원성 대장균 ‘O157’ 관련...검역당국 긴장

미국에서 쇠고기 제품의 리콜(회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미국산 쇠고기 본격 수입을 앞둔 우리 국민과 검역 당국의 우려와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병원성 대장균 ‘O157’ 관련 리콜의 경우 당장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보낼 수 있는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

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농림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최근 샘플 검사를 통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래스카 비프’사(社)의 분쇄육(ground beef)에서 ‘O157’균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53만1천707파운드(약 241t)에 대해 리콜 조치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플루토늄 남아 있으면 비핵화 인정못해”

힐 “北 핵검증 완전한 협력 약속”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관련, 핵신고서를 분석하고 검증 방안을 고안해 철저히 검증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북한으로부터 플루토늄을 확보, 외부로 반출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은 신고한 핵 프로그램 내역에 대한 검증에 있어 완전하게 협력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

관보는 이날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최근 영변의 방각탑 폭파에 대해 “매우 훌륭한 신호”이며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확보, 외부로 반출하는 게 최종 목표”라면서 “북한에 플루토늄이 남아 있다면 비핵화된 게 아니다”라고 역

설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북한 플루토늄을 외부로 반출할 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이 신고한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부터 일정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6자 수석대표회담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7회 1급 사회복지사

여름방학특강

김형준 교수 특별초빙

(08년 6월 27일 ~ 09년 1월 31일)

6회 대비 모의고사 적응률 1위!!

1단계

2008년 6월 27일 ~ 7월 11일

2단계

2008년 7월 14일 ~ 7월 28일

3단계

2008년 8월 11일 ~ 8월 25일

www.dongbugosi.co.kr **광주 동부고시학원** 062) 233-0100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납골당에 안장하는 것은, 원가족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원가족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원가족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2. 납골당에 안장하는 것은, 원가족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원가족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원가족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관: 062-233-0100, 02-233-0100, 02-233-0100, 02-233-0100